2025 한양대학교

SW/ICT/AI 종합학술대회

[분야 : 웹서비스 구축]

제목: 웹서비스 구축 (영화 추천 플랫폼)

정다은(25학번)

2025. 11. 26

한양대학교 ERICA 소프트웨어융합대학 / 한양대학교 ERICA SW중심대학사업단

CONTENTS

1 the Feelm의 소개

2 the Feelm 만의 차별성

3 구현 장면

4 기대 효과 및 발전

영화에 대한 모든 것

the Feelm

the Feelm : 당신의 감정에 집중합니다 (Feel + film)

아이디어의 시작 -> 원래 대부분의 OTT는 나의 시청기록에 의해서만 영화를 추천해줌, 영화에 대한 소개를 알기 힘듦

영화 추천 플랫폼을 만들자 ! ==> '왓챠피디아' 라는 앱과 거의 동일 => 나만의 차별성을 찾아야 했음

첫 번째 차별성 : "감정"이라는 플랫폼의 컨셉트를 잡고 웹서비스를 구축하기 시작

두 번째 차별성 : 영화 멘토 서비스 (평론가와의 컨택트, 영화 관람객들 간의 소통의 장, 영화 애호가 또는 전문가와 영화 초보자의 멘토 멘티식 영화 추천)



영화에 대한 모든 것

the Feelm의 차별성

'감정' 이라는 콘셉트

영화 플랫폼의 이름 또한 Feel + Film을 합쳐 Feelm

힘든 하루 아니면 어떤 날보다 기쁜 하루를 마치고 포근한 집에서 편안히 영화를 보며 마무리 짓는 따뜻한 감정에 집중함

==> 단순한 장르별 영화 추천이 아닌 오늘 하루 나만의 감정에 따른 영화 추천

일기장처럼 나만의 영화 감상 기록장 화면을 만듦

공개 비공개로 나누어 서로의 감상을 볼 수도 있고 때론 나만 알고싶은 감정이나 감상을 작성하여 영화 일기장처럼 만들 수 있는 페이지 제작

많은 사용자들이 다시 플랫폼을 재방문할 수 있도록 나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게 플랫폼을 제작

Feel를 주제로 한 플랫폼 첫 화면의 모습





영화 추천 플랫폼 The Feelm 첫 번째 차별점

구현 장면







the Feelm의 차별성

Feelm mentor 영화 입문자, 영화 애호가들을 위한 멘토 서비스

유명한 평론가를 구독하여 추천 영화 또는 자신이 감상한 영화에 대한 해석을 볼 수 있도록 Feelm mentor 서비스 제공

현재 재현은 유명 평론가의 블로그와 추천 작품에 대한 영상 그리고 여러 평론가들의 비평을 모아놓은 사이트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사이트를 연결해놓은 단계

앞으로 플랫폼의 발전 방향 ==>

평론가들과의 컨택트를 통해 사이트 자체에 평론가 홈을 만들어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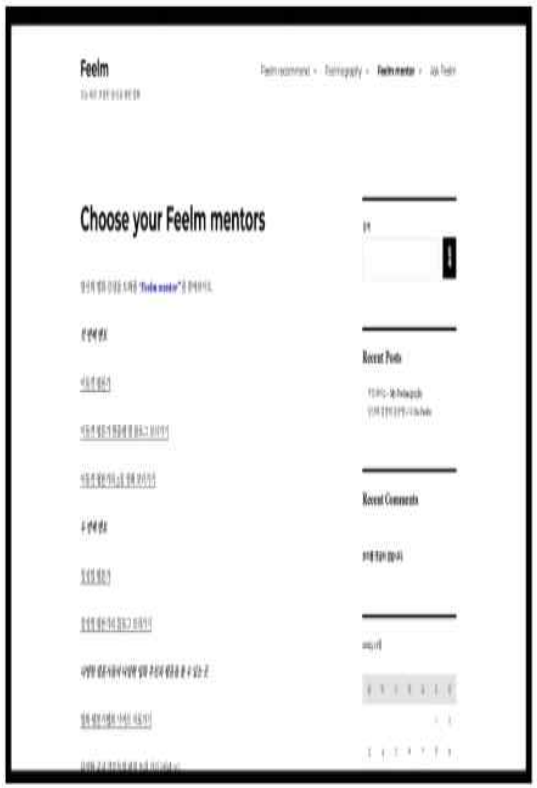
또 Feelm mentor 이기 때문에 평론가뿐만 아니라 사용자들끼리의 멘토 멘티와 같이 서로 컨택하여 이야기 나누는 장 생성

더 이어가 영화별로 또는 취향별로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서로의 감상을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화의 장 생성

영화 추천 플랫폼 The Feelm 두 번째 차별점

구현 장면







영화 추천 플랫폼

the Feelm의 기대효과와 발전

the Feelm의 기대효과

감정 인식·표현을 돕는 '정서 케어(Emotional Care)' 효과

개인 맞춤형 영화 추천의 정확도·만족도 상승

사용자 경험(UX) 강화 및 플랫폼 재방문 유도

the Feelm의 발전

플랫폼을 키우면 평론가와의 컨택트

저작권에 대한 공부 후 더 많은 정보를 타 사이트 연결이 아닌 자체적으로 제공

커뮤니티 확장 (사용자들끼리의 1대1 대화, 평론가와의 오픈채팅, 다수의 채팅방)